트레이드 렌즈
TRADE LENS

투자에 초점을 맞추다.

MACRO INSIGHT / No.08

정책과 자금 흐름이 바꾸는 시장 구조를 읽는 리서치

미국 국채 바이백 환매의 효과는 발행까지 봐야 한다

환매·순차입·민간 금리 위험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

장기 명목채 5회 · 실제 낙찰 액면

272.65억 달러

2026.09.10~10.15

합계 최대한도 대비 낙찰 비율

90.9%

300억 달러 한도 · 자체 계산

국채를 되사는 효과는 새로 발행하는 채권과 연결된다.

거래 여건·순조달·민간 금리 위험을 따로 판단해야 한다.

공식 운용결과 [2] [3] [4] [5] [6] · 대상은 잔존만기 10~20년·20~30년 명목 쿠폰채. 액면은 현금 지급액과 다르다.

분석 기준일 2026.10.25

TRADELENS.KR

실제 환매 · 액면과 현금 · QE 비교 · 발행과 듀레이션

01 / RESEARCH VIEW

환매의 효과는 발행까지 연결해야 보인다

TradeLens 판단 | 거래 여건의 개선, 민간의 금리 위험, 재정 조달 부담을 나눠 평가한다.

핵심 결론

미국 재무부의 장기채 바이백 확대는 기존 국채를 처분할 경로를 넓히는 정책이다. 그러나 **환매한 액면만큼 돈이 새로 풀리거나 정부의 조달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대금, 이를 충당하는 발행, 민간에 남는 금리 위험을 함께 봐야 경제적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7] [8] [12]

무슨 변화인가

9월 10일~10월 15일 장기 명목채 5회 운용의 최종 최대 한도는 합계 300억 달러, 실제 낙찰액은 272.65억 달러였다. 모두 액면 기준이다. [2] [3] [4] [5] [6]

왜 중요한가

국채를 파는 기회가 생기는 효과와 은행 지준의 변화는 서로 다르다. 재무부 계좌에서 지급하는 거래와 연준이 자산을 늘리는 거래를 구분해야 한다. [11] [12]

경제적 효과는 어디로 가는가

보유자·딜러는 재고를 처분할 경로를 얻는다. 정부가 장기채를 단기채로 대체한다면 민간의 금리 위험은 줄 수 있지만 정부의 차환 노출은 커질 수 있다. 이는 조달구성에 따른 조건부 해석이다.

어떤 증거로 판단하는가

낙찰액에 더해 거래비용·딜러 중개능력·신규 발행의 만기를 본다. 10월 공개된 차환회의 의제도 확대환매의 유동성과 중개 효과를 묻고 있다. [10]

현재 자료가 보여주는 것은 환매 확대의 실행이다. 그것이 시장 전체의 거래비용을 얼마나 낮췄는지, 장기금리를 얼마만큼 바꿨는지는 별도의 효과 측정이 필요하다. 한도 소진이나 높은 매도 제시액만으로 정책의 성공을 판정할 수는 없다.

판단의 기준

바이백은 거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부채관리 수단이다. 그 가치는 낮아진 거래·조달 비용이 새로 부담하는 자금조달 비용과 차환 위험을 넘어서는지에 달려 있다.

분석 기준일: 2026.10.25. 핵심 실적은 확대 대상인 잔존만기 10~20년·20~30년 명목 쿠폰채 5회. 현금관리·TIPS·다른 만기 구간은 합산하지 않았다.

02 / POLICY DESIGN

확대된 것은 매입 기회와 최대한도다

정책의 적용 범위 | 장기 명목채 확대와 전체 바이백 프로그램을 같은 숫자로 읽지 않는다.

재무부는 8월 19일 잔존만기 10~20년과 20~30년 명목 쿠폰채의 회당 최대한도를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적용기간은 9월 9일부터 11월 4일까지다. 이후 실행된 해당 구간 5회의 최종 최대한도는 각각 60억 달러였다. [1] [2] [3] [4] [5] [6]

단계	확인된 내용	해석의 경계
8월 19일 정책 발표	장기 명목채 회당 한도 최소 2배 확대	최소 40억 달러는 실제 낙찰액이 아님 [1]
9월 10일~10월 15일 실행	장기 명목채 5회, 회당 한도 60억 달러	최종 한도와 낙찰액을 따로 집계 [2] [3] [4] [5] [6]
10월 16일 의견 수렴	확대환매의 유동성·중개능력 효과 질문	질문은 효과 평가의 완료나 정책 확정이 아님 [10]
11월 4일 차환계획	다음 분기 차환계획 발표 예정	기준일 이후의 한도·발행 변경은 미확정 [9]

같은 환매라도 목적과 만기가 다르다

유형	목적	주요 범위
유동성 지원	기존 발행물을 정기적으로 매도할 기회 제공	명목채·물가연동국채의 여러 잔존만기 구간
현금관리	세수·지출에 따른 현금잔액과 단기채 발행 변동 완화	통상 잔존만기 1개월~2년의 쿠폰채

제도 목적·범위: [7]. On-the-run은 같은 만기에서 가장 최근 발행된 국채, off-the-run은 그 이전 발행물이다. 대상 구간의 '10~20년'은 최초 발행만기가 아닌 잔존만기다.

TradeLens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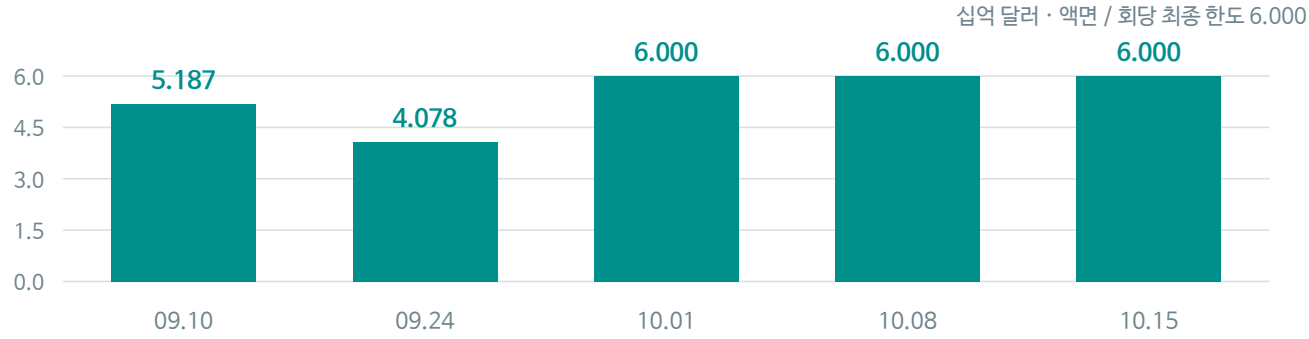
현금관리 환매를 장기채 수요 지원과 합산하면 정책의 목적과 제거되는 금리 위험이 섞인다. 이번 확대의 평가 단위는 **해당 장기 명목채 구간의 실제 낙찰과 거래 여건**으로 좁히는 것이 적절하다.

03 / EXECUTION

300억 달러 한도 중 272.65억 달러가 낙찰됐다

공식 운용결과 | 2026.09.10~10.15, 장기 명목채 5회, 모두 액면 기준.

운용별 실제 낙찰액



운용일·출처	잔존만기 구간	최대한도	낙찰액	한도 대비
09.10 [2]	10~20년	6.000	5.187	86.5%
09.24 [3]	20~30년	6.000	4.078	68.0%
10.01 [4]	10~20년	6.000	6.000	100.0%
10.08 [5]	20~30년	6.000	6.000	100.0%
10.15 [6]	10~20년	6.000	6.000	100.0%
합계	해당 5회	30.000	27.265	90.9%

단위: 십억 달러. 한도 대비 비율 = 낙찰액 / 해당 최대한도. 합계 비율은 27.265 / 30.000으로 계산한 뒤 반올림했다. 각 결과 발표 p.1의 액면을 집계했으며 결제 현금액과 다르다. [2] [3] [4] [5] [6]

9월 24일에는 104.68억 달러의 매도 제시에도 60억 달러 한도 중 40.78억 달러만 낙찰됐다. 제시액이 한도보다 크다고 재무부가 한도를 채울 의무는 없다. 제도상 가격과 상대가치를 평가해 일부만 매입하거나 매입하지 않을 수 있다. [3] [7]

한도 소진율의 의미

90.9%는 실행 강도를 보여준다. 유동성 개선률이나 정책 성공률은 아니다. 미사용 한도도 유동성 지원 운용에서는 다음 회차로 자동 이월되지 않는다. [7]

04 / PAR, PRICE & CASH

액면 60억 달러를 현금 60억 달러로 읽으면 틀린다

2026년 10월 15일 사례 | 공표 낙찰가격으로 계산한 경과이자 제외 대가는 약 39.70억 달러다.

10월 15일에는 42개 적격 종목 가운데 3개가 낙찰됐고, 액면 60억 달러 중 55.8억 달러가 한 종목에 집중됐다. 액면 100달러당 낙찰가격이 100달러보다 낮으면 현금 대가는 액면보다 작아진다. [6]

종목·만기	표면금리	낙찰 액면	가격 / 액면 100	대가 계산
912810TC2 2041.11.15	2.000%	5,580	65.246	3,640.73
912810TH1 2042.05.15	3.250%	400	77.504	310.02
912810UL0 2045.05.15	5.000%	20	94.453	18.89
합계	–	6,000	–	3,969.63

액면·대가 단위: 백만 달러. 대가는 각 낙찰 액면 × 공표 가중평균 낙찰가격 / 100의 합계로, 합계는 반올림 전 값으로 계산했다. 가격은 원문에서 소수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됐으므로 대가는 근사치이며 경과이자를 제외한다. [6]

결제액의 정의

실제 결제액은 **낙찰 액면 × 낙찰가격 / 100 + 경과이자**다. 경과이자는 직전 이자 지급 후 쌓인 이자다. 따라서 표의 39.70억 달러는 결제 총액이나 은행 지준 순증가액이 아니다. [12]

할인 매입이 공짜 재정이익을 뜻하지는 않는다

낮은 표면금리의 채권은 시장금리가 높아지면 액면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다. 할인된 채권을 환매하면 액면채무는 크게 줄어 보이지만, 동시에 기존의 낮은 이자 지급 의무를 없애고 새 조달비용을 부담한다. 경제성은 액면 차익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TradeLens 해석

채무 액면의 감소, 실제 지급 현금, 미래 이자비용의 변화는 다른 숫자다. **가격에 이미 반영된 저쿠폰 효과를 별도의 재정 개선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아야 한다.**

05 / BUYBACKS, QE & RESERVES

누가 사고 어떤 계정이 바뀌는지가 핵심이다

제도 비교 | 뉴욕연준이 거래를 처리한다는 사실만으로 통화정책 매입이 되지는 않는다.

구분	재무부 바이백	연준 QE	연준 지준관리 매입
정책 목적	국채 거래 여건·현금관리	장기금리·금융여건 완화	충분한 은행 지준 유지
매입 주체	재무부; 뉴욕연준은 재정대리인	연준; FOMC의 통화정책 결정	연준; 정책금리 운용 기반 관리
매입채권 처리	결제 시 소각	연준 자산으로 보유	연준 자산으로 보유
연준 자산총액	환매 지급 자체로 증가하지 않음	순매입 시 증가	순매입 시 증가
주요 평가변수	가격·유동성·발행·차환 위험	정책 목적·보유 규모·듀레이션	지준 수급·단기시장금리

바이백의 운영·소각: [7] [12]. 연준 자산·부채 및 QE·지준관리 구분: [11]. QE는 제도의 비교 개념이며 2026년 10월의 정책 시행을 뜻하지 않는다.

재무부 지급은 지준을 늘릴 수 있지만 자산 확대와 다르다

재무부가 연준에 둔 일반계정(TGA)에서 민간에 지급하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TGA는 줄고 은행 지준은 늘어난다. 연준의 부채 내부 구성이 바뀌는 것이다. 반대로 신규 국채 매수대금이 은행 지준에서 TGA로 들어오면 앞선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11]

거래 전후를 함께 보는 이유

지준에서 납입한 신규 발행대금과 환매 지급액이 같고, 두 결제 외에 변화가 없다면 TGA·지준의 최종 순변화는 0이다. 다만 결제 시차, 매수자의 자금 출처, 역레포 등 다른 연준 부채의 변화에 따라 실제 지준 경로는 달라진다. 이는 자금 흐름을 설명하는 조건부 모형이다.

TradeLens 해석

환매는 일시적인 지급 흐름과 채권 구성을 바꿀 수 있다. **그 효과를 판단하려면 재무부 현금계정과 신규 발행을 연결해야 하며, 환매액을 연준의 순자산 매입액처럼 사용할 수 없다.**

06 / FINANCING MIX

국채를 되사도 새로 조달할 자금은 남는다

순차입과 발행구성 | 유동성 지원을 재정적자 해소나 순공급 감소로 자동 연결하지 않는다.

공식 차입전망의 전제

재무부는 8월 3일 차입전망에서 신규 발행이 환매된 국채를 대체하므로 바이백이 민간 보유 시장성 순차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설명했다. **개별 채권의 소각과 정부 전체의 조달 부담 감소는 같은 사건이 아니다.** [8]

정부의 조달 필요는 재정적자 외에도 현금잔액의 증감, 기타 자금조달 항목, 연준 보유채권의 만기 재투자·상환에 영향을 받는다. 10월 차환회의 의제는 이러한 구분을 반영해 민간 순차입과 현금잔액, 기타 조달항목을 각각 묻고 있다. [10]

발행만기	8월 계획	9월 계획	10월 계획
10년물	42	39	39
20년물	16	13	13
30년물	25	22	22

단위: 십억 달러 / 회. 2026.08.05 차환계획에 기재된 8~10월 예정 경매 규모로, 실제 순발행액이나 환매 재원의 만기별 배분이 아니다. 신규·재개방 경매가 포함되며 순공급 계산에는 만기 상환 등도 필요하다. [9]

같은 발표에서 명목 쿠폰채·변동금리채 경매 규모를 당분간 유지하고, 계절적 자금 수요는 단기국채 발행으로 조정할 계획을 제시했다. 이 계획만으로 추가 장기채 환매가 전부 단기채 발행으로 충당됐다고 결론 낼 수는 없다. [9]

판단할 대상	같이 보아야 할 항목
재정 조달 부담	적자·현금잔액 변화·기타 조달항목·연준 만기 처리
민간의 채권 공급	신규 발행·만기 상환·바이백·연준 보유 변동
민간의 금리 위험	각 거래의 시장가치·듀레이션·만기 구성

TradeLens 해석

환매로 사라진 채권의 만기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 생긴 채권의 만기를 봐야 한다. 총액이 비슷해도 조달 구성이 달라지면 민간이 부담하는 금리 위험과 정부의 차환 위험은 바뀔 수 있다.

07 / DURATION SCENARIOS

같은 현금 조달도 금리 위험의 결과는 다르다

설명용 가정 | 아래 계산은 실제 운용의 듀레이션 추정이나 정부 발행 전망이 아니다.

듀레이션은 금리 변화에 대한 채권가격의 민감도를 나타낸다. 액면이 같아도 표면금리·가격·잔존만기가 다르면 민감도가 달라진다. 환매와 대체 발행을 평가할 때는 시장가치와 수정듀레이션을 곱해 작은 금리 변화에 대한 노출을 비교할 수 있다.

가정과 계산식

시장가치 40억 달러, 수정듀레이션 12년인 기존 채권을 환매하고 같은 40억 달러를 새로 조달한다고 가정한다. **DV01 ≈ 시장가치 × 수정듀레이션 × 0.0001**. DV01은 금리가 1bp 변할 때 가격이 변하는 금액의 크기다. 1bp = 0.01%p.

항목	A · 단기채로 대체	B · 같은 민감도의 장기채로 대체
새 발행 시장가치	40억 달러	40억 달러
새 발행 수정듀레이션	0.25년	12년
환매로 제거되는 DV01	480만 달러 / bp	480만 달러 / bp
새 발행으로 더해지는 DV01	10만 달러 / bp	480만 달러 / bp
민간 순 DV01 변화	−470만 달러 / bp	0
핵심 비용·위험	정부의 재조달 주기가 짧아짐	민간 금리 민감도는 거의 유지

두 경우 모두 신규 조달금액과 환매 현금액이 같다고 둔다. 민간의 현물국채 보유만 비교하며 헤지거래, 경과이자·거래비용·현금계정 변화·연준 거래·가격의 비선형성은 제외한다. 모든 금리가 같은 폭으로 조금 움직이는 근사다.

A에서는 연준 자산을 늘리지 않아도 민간의 장기 금리 노출이 줄어든다. 대신 정부는 더 이른 시점에 당시 금리로 다시 조달해야 한다. B에서는 채권 종목이 바뀌어 거래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도 총 금리 민감도는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판단을 바꾸는 변수

환매 금액보다 대체 발행의 만기가 중요해지는 구간이 있다. 발행과 환매를 함께 계산한 순듀레이션이 줄어드는지, 그 대가로 정부의 차환 노출이 커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08 / ECONOMIC INCIDENCE

먼저 생기는 편익은 팔 수 있는 경로다

수혜와 비용 | 거래 여건 개선은 가능한 경로이며, 모든 국채 보유자의 가격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

주체	가능한 경제적 편익	함께 부담하는 비용·조건
기존 채권 보유자	보유 종목을 처분할 정기적 기회	경쟁 가격으로 제시해야 하며 낙찰이 보장되지 않음
딜러·중개기관	재고 처분 및 고객 흐름 중개 여력	잔여 재고·헤지·자금조달 비용; 순이익은 별도
재무부·납세자	거래 여건 개선이 조달비용을 낮출 가능성	매입대금의 조달비용, 발행구성에 따른 차환 위험
전체 국채시장	일부 기존 발행물의 거래비용·가격 왜곡 완화 가능성	인플레이션·정책금리 기대·재정 수요가 계속 영향을 줌

제도 경로의 근거: 상대가치·시장가격 평가와 부분 매입 [7]. 주체별 편익·비용은 TradeLens 분석이며 실제 이익 규모나 금리 하락폭을 추정한 값이 아니다.

성과를 보려면 거래비용과 중개능력을 측정해야 한다

10월 16일 공개된 의제는 확대환매가 유동성과 시장 기능, 딜러의 고객 흐름 중개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묻는다. 이는 매입 규모 외에 확인해야 할 성과 지표를 보여준다. 답변이나 정책평가 결과의 확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10]

측정 항목	강화되는 판단	남는 식별 문제
매수·매도 호가차, 호가 깊이	거래비용 감소·거래 가능량 확대	시장 변동성 하락의 공통 효과와 분리
유사 만기·금리 민감도의 상대가격	특정 기존 발행물의 가격 왜곡 축소	표면금리·레포·선물 인도 특성 차이 통제
재고 체류·고객 거래 중개능력	딜러의 위험 수용 여력 개선	다른 규제·자본·자금조달 변화와 분리

TradeLens 해석

장기금리 전체가 오르는 동안에도 특정 채권의 거래 여건은 좋아질 수 있다. 반대로 금리 하락만으로 바이백의 유동성 개선 효과를 입증할 수는 없다. **시장 전체의 방향과 대상 종목의 거래 마찰을 분리해 평가해야 한다.**

09 / MONITORING & FALSIFICATION

11월에는 환매와 발행의 조합을 확인한다

검증 일정 | 11월 4일 정책 결과를 가정하지 않고, 현재 판단을 바꿀 조건을 정한다.

공개 의제상 딜러 답변 마감은 10월 26일, 재무부 회의는 10월 29~30일이다. 다음 차환계획 발표는 11월 4일로 예정돼 있다. 기준일 현재는 확대된 환매의 실행을 평가하고 다음 조합을 확인할 단계다. [9] [10]

확인 항목	현재 판단을 강화하는 증거	판단을 약화·수정할 증거
환매의 실제 실행	낙찰 규모와 가격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지속	한도 확대에도 제시가격 문제로 매입 축소 반복
거래 여건의 개선	유사 종목·변동성을 통제해도 호가·거래 여건 개선	낙찰액 증가에도 거래 마찰이 유지되거나 악화
발행을 합친 금리 위험	장기 환매와 짧은 조달이 결합해 민간 순DV01 감소	신규 장기 발행 등이 환매의 위험 제거를 상쇄
정부 조달의 경제성	유동성 편익이 조달비용·차환 부담을 보상	재조달 금리·빈도 상승이 기대 편익을 압도
정책의 구분	재무부 환매와 연준 자산·지준 흐름을 각각 설명	별도 연준 매입·현금계정 변화가 결합하면 합산 효과 재평가

평가 방향은 TradeLens 분석 기준이다. 매도 제시액/낙찰액 비율은 매입 경매의 제시 강도이며 신규 발행 경매의 응찰률과 목적이 다르다. 통계적 효과 추정에는 비교 대상과 시장 공통요인의 통제가 필요하다.

최종 판단

확대환매는 거래 여건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 유효성을 재정문제의 해결이나 자동적인 통화완화로 넓혀 해석할 근거는 부족하다. 다만 대체 발행이 짧아지면 QE 없이도 민간의 금리 위험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정책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독자에게 필요한 판단 순서는 실제 낙찰액과 지급가격, 자금 조달 방식, 민간에 남는 금리 위험, 거래비용의 변화다. 이 네 연결이 확인될 때 바이백의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다.

10 / SOURCE REGISTER

정책·운용결과·회계구조의 원문 근거

본문의 청록색 출처번호, 아래 자료명과 원문 열기는 같은 원문에 연결된다.

01. 미국 재무부 | 장기 명목채 유동성 지원 바이백 확대 발표 원문 열기
2026.08.19 발표 · 10~20년·20~30년 구간의 회당 최대한도 확대 및 적용기간

02. 미국 재무부·TreasuryDirect | Treasury Debt Buyback Operation Results · 2026.09.10 원문 열기
2026.09.10 발표 · p.1~2: 최대한도, 제시액, 낙찰액, 대상 만기 및 종목

03. 미국 재무부·TreasuryDirect | Treasury Debt Buyback Operation Results · 2026.09.24 원문 열기
2026.09.24 발표 · p.1~2: 최대한도, 제시액, 낙찰액, 대상 만기 및 종목

04. 미국 재무부·TreasuryDirect | Treasury Debt Buyback Operation Results · 2026.10.01 원문 열기
2026.10.01 발표 · p.1~2: 최대한도, 제시액, 낙찰액, 대상 만기 및 종목

05. 미국 재무부·TreasuryDirect | Treasury Debt Buyback Operation Results · 2026.10.08 원문 열기
2026.10.08 발표 · p.1~2: 최대한도, 제시액, 낙찰액, 대상 만기 및 종목

06. 미국 재무부·TreasuryDirect | Treasury Debt Buyback Operation Results · 2026.10.15 원문 열기
2026.10.15 발표 · p.1~2: 액면 60억 달러, 3개 낙찰 종목, 가중평균 낙찰가격

07. 미국 재무부·TreasuryDirect | FAQs about Treasury Securities Buybacks 원문 열기
2026.10.25 기준 · 제도 안내 · 목적, 대상, 소각, 미달매입, 상대가치 및 운영 방식

08. 미국 재무부 | Treasury Announces Marketable Borrowing Estimates 원문 열기
2026.08.03 발표 · 분기 차입 전망과 각주 1: 신규발행·환매·민간 순차입의 관계

09. 미국 재무부 | Quarterly Refunding Statement · August 2026 원문 열기
2026.08.05 발표 · 8~10월 발행계획, 계절적 단기채 조정, 11월 4일 차환계획 일정

10. 미국 재무부 | Agenda · November 2026 Refunding 원문 열기
2026.10.16 공개 · p.1, 3, 5: 회의·답변 일정, 확대환매 효과 질문, 순차입 정의

11.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 The Fed's Balance Sheet and Ample Reserves 원문 열기
2026.02.18 발표 · 중앙은행 교육자료 · TGA·지준·연준 자산, QE와 지준관리 매입 구분

12. 미국 전자연방규정집 eCFR | 31 CFR Part 375 · Marketable Treasury Securities Redemption Operations 원문 열기
2026.10.22 반영 기준 · §§375.0, 375.2, 375.3: 재원, 액면·가격·결제액, 재정대리인

운용결과의 쪽수는 원문 PDF 기준이다. 최대한도·제시액·낙찰액은 액면, 낙찰가격은 액면 100달러당 가격이다. 계획 발표일과 운용일, 기준일 이후 일정은 구분했다.

11 / METHODOLOGY & USE

자료·계산 기준과 보고서 이용 안내

공식 운용결과, 정책 계획, TradeLens 해석과 설명용 가정을 구분한다.

항목	적용 기준
기준일·실적 범위	2026.10.25. 핵심 집계는 2026.09.10~10.15의 잔존만기 10~20년·20~30년 명목 쿠폰채 유동성 지원 운용 5회. 현금관리·TIPS·다른 만기 구간과 향후 예정 운용은 제외.
한도·실행·단위	운용별 최종 결과의 최대 환매 액면과 실제 낙찰 액면을 사용. 합계 300억·272.65억 달러. 소진율은 실제 낙찰액/최대한도. 1십억 달러=10억 달러; 1백만 달러=0.01억 달러.
가격·대가 계산	10월 15일 종목별 낙찰 액면×공표 가중평균 가격/100을 합산. 가격은 원문 소수 셋째 자리 반올림값. 약 39.70억 달러는 경과이자 제외 근사치이며 결제 총액과 다름.
정책·계획의 구분	8월 5일 8~10월 경매표는 당시 예정 규모로 제시. 10월 16일 자료는 의견수렴 의제. 11월 4일 발표는 기준일 이후 일정이며 결과를 가정하지 않음.
설명용 민감도	시장가치 40억 달러·수정듀레이션 12년 채권 환매, 동일 조달액, 대체 발행 듀레이션 0.25년/12년 가정. DV01≈시장가치×수정듀레이션×0.0001. 실제 정책·금리 전망 아님.

자료·계산은 미국 달러 기준이다. 액면·시장가치·결제대금·은행 지준을 서로 대체하거나 합산하지 않는다. 반올림은 계산 후 적용했다. 듀레이션 모형은 작은 평행 금리 변화의 근사이며 실제 금리곡선·거래비용·정책의 인과효과를 추정하지 않는다.

면책고지

본 보고서는 거시경제·국채시장 구조 및 정책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매수·매도 의견·시점, 적정가격·목표가격 및 이용자별 투자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록 정보와 분석은 작성일 기준이며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망·가정 및 예시 계산에는 불확실성이 있으며 원금이나 투자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판단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계 법령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트레이드렌즈는 본 보고서 이용에 따른 투자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및 이용 제한

본 보고서의 서술·도표·디자인·편집 및 구성 중 트레이드렌즈가 권리를 보유한 부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개인 열람·보관 외에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편집·번역·재가공하거나 복제·전송·재게시·재배포·판매할 수 없습니다. 유료·무료 제공 및 파일·화면 캡처 등 형태를 불문하며 로고·출처·권리표시를 제거하거나 제3자 명의로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이용과 제3자 자료의 개별 이용허락조건은 그에 따릅니다. 공유는 트레이드렌즈 공식 게시페이지의 원문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